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설명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2020. 5. 13.(수) 총 4매(본문 4)
<b>담당 부서</b>	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서비스과	<b>담당자</b>
<b>보도일시</b>	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사무관 윤상원 ·☎ (044) 201-3817, 4770, 3816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

### 제9차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5월말부터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출시

-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여 곧 출시된다.
  - 파파, 코엑터스, 스타릭스, 코나투스까지 총 4개 업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며, 플랫폼 운송사업, 사전 확정요금제, 출근시간의 승객 간 동승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4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5월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상반기 중 서비스 될 것이라고 밝혔다.
  - 그간 모빌리티 혁신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,
  -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:1 컨설팅 지원,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.

- 사업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신청과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고,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기존 심의위 예상일보다 앞당겨진 날짜에 9차 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었다.
  - 이번 9차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다수 통과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파파 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,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,
-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,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·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,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
  -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동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.
-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'고요한 택시'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'고요한 모빌리티'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
- SUV차량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하고,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,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,
  - 청각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(30%이상) 고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

- 파파 모빌리티와 코엑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
- 스타릭스(LOCAR)는 택시를 활용하여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
  - ①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, ②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와 함께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,
    - ① 출발지·경유지·목적지 경로와 경유지별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확정 요금 부과
    - ② 시간정액운임제로 특정 시간동안 정해진 요금을 부과
- 6월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하여 요금결제의 편리함은 물론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-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(반반택시)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(서울 12개구 → 서울 전역)과 운영시간 확대(22시~04시 → 22시~10시)를 신청하였다.
  - 그동안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사업지역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, 출근시간까지의 운영시간 확대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 이후에도 관심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.

-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실증특례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으로,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며
- “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해 1:1 사전 신청 컨설팅, 절차 신속추진 등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택시산업팀 윤상원 사무관(☎044-201-38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